

한국엔컴퍼니, 디지털 인재 육성 박차

카이스트와 미래기술 연구 협약

한국엔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는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과 디지털 미래혁신센터 3기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이스트 디지털 미래혁신센터는 지난 2019년 한국엔컴퍼니와 디지털 기술 역량 확보를 목표로 건립한 산학협력 조직이다.

한국엔컴퍼니와 카이스트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협력 및 우수 디지털 인



이동만 카이스트 교학부총장(왼쪽)과 김성진 한국엔컴퍼니 디지털전략실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 육성을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AI 기술 공동 개발 또한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건설-홀심, 저탄소 기술 개발 맞손

현대건설이 친환경 건설자재 전문기업 홀심(Holcim)과 저탄소 건설재료 공동개발 및 기술 협력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에 위치한 홀심 본사에서 '저탄소 건설재료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탄소발생량 저감을 위한 소성점도 활용 저탄소 신재료 개발 ▲해양환경 대응 고내구성 콘크리트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저탄소 건설재료의 적용 확대에 힘을 쏟는다. /김대환 기자 kdh@

스타벅스, 자립준비청년에 지원증서 전달

스타벅스는 전날 스타벅스지원센터에서 스타벅스 코리아 김낙호 지원본부장, 아름다운재단 김아란 변화혁신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청년자립 정착금 지원 사업' 지원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25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증서를 전달하고, 스타벅스 커피 전문가의 특별 커피 강연을 통해 커피의 맛과 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외교부 △대사 △주니카라과대사 민재훈 △주네덜란드대사 최형찬 △주네팔대사 박태영 △주르완다대사 정우진 △주바레인대사 구현상 △주불가리아대사 배종인 △주벨기에유령연합대사 유정현 △주아세안대사 이장근 △주아일랜드대사 김용길 △주이집트대사 김용현 △주카자흐스탄대사 조태익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 지규택

부음

▲김홍식씨 별세, 천대권(인카금융서비스

부회장) 병부상, 강동성심병원 1호실, 발인 27일 오후 1시 30분, 장지 양평추모공원. 02-470-1692

▲배혜성씨 별세, 구중태(제16대 국회의원)씨 부인상, 구재욱·구혜원·구상욱(배재대 교수)씨 모친상, 최수형씨 시모상=25일 0시 2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40

▲강윤량씨 별세, 강남화(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강연경(양천구청)·강동수(자영업)·강정화(미국 거주)씨 부친상, 박종철(한국지속경영연구원장·전 한화투자증권 상무)·이중복(종로구청)씨 장인상, 선정씨 시부상=25일 오전 7시 23분, 서울성모병원 5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15분. 02-2258-5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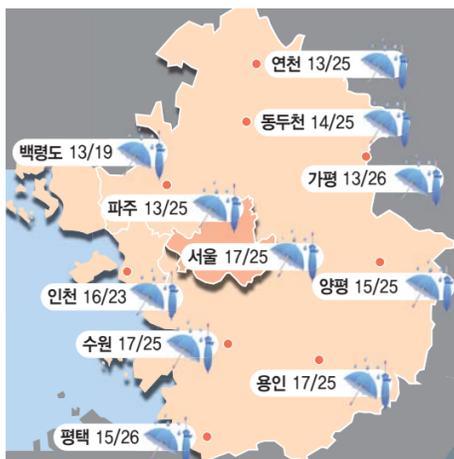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6 | 해질 / 19:43

5월 26일(금)
음력: 4월 7일

수도권 날씨
17~2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삼성 '지속 가능한 일상' 기술·제품 소개 LG '넷제로 하우스' 테마 전시공간 마련

지속가능한 미래 향한 비전 소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도

삼성과 LG가 부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노력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에도 힘을 보탠다.

삼성과 LG는 오는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WCE2023은 전세계 기후 산업 분야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는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개최된다.

삼성은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함께 삼성홍보관을 열었다. '지속 가능한 일상'을 주제로 ▲에너지 가치를 높이는 제품 ▲기술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환경가치를 창출하는 배터리 기술을 소개한다. 삼성은 부산을 지난 4월 '2023 월드IT쇼'에서 사용했던 재활용 나무 합판 등 구조물을 재사용하고 폐섬유 패널과 폐플라스틱 판재를 마감 자재로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꾸몄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키오스크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삼성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홍보관



LG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부스

노력을 소개하고, 가정에서도 지속 가능한 일상을 실천하는 다양한 가전제품을 전시했다. 에어컨과 세탁기 등 주요 제품 에너지 절약 기술과 에코패키지를 활용한 리사이클링 활동 등 미래를 생각하는 삼성전자 기술 철학을 확인한다.

삼성SDI는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배터리 기술을 선보인다. 영상 콘텐츠를 통해 ▲배터리의 친환경 스토리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기후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활동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배터리 제조를 넘어 LCA(Life Cycle Assessment, 전과정 환경 영향 평가) 등의 탄소저감 활동을 통한 삼성SDI의 미래 환경개선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다.

LG는 지주사와 LG전자, LG화

학과 에너지솔루션 등 계열사와 함께 450㎡ 규모 통합 부스를 마련했다.

LG전자는 탄소중립을 의미하는 '넷제로(Net Zero) 하우스'를 테마로 전시공간을 꾸몄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가전, LG 씽큐(LG ThinQ) 기반의 에너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탄소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해 지속가능한 삶을 선보인다는 의미를 담았다.

LG전자H&A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은 "제품이 생산돼 폐기되기까지 전 여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지속 선보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 공개

수소연료전지 신기술 등 전시
기후위기 대응 비전 공유 계획

현대자동차그룹이 2030 세계박람회 후보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 기후·에너지 분야 국제박람회에서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와 수소연료전지 신기술을 선보인다.

현대차그룹은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2023)'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벡스코 1전시관 내 미래모빌리티관에 전시 참가 업체 중 가장 큰 828m²에 달하는 대형 전시관을 마련하고 ▲플래그십 전동화 SUV EV9을 비롯해 ▲수소전기트럭 살수차 ▲수소연료전지 멀티콥터 드론 ▲수소연료전지 기반 '엠비전 투고(M.Vision 2GO)' ▲수소 기반 탄소중립 제철 공정 모형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수소전기트랩 모형 등 그룹의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및 수소연료전지 신기술을 전시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후·에너지분야 글로벌 기업과 기관, 학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 및 솔루션을 전시함으로써 2030년 탄소중립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하는 부산과 한국 기업들의 엑스포 개최 역량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 19개 계열사 참여... "넷제로 시티 부산" 구현

탄소중립 실현 위한 미래 사업 소개

롯데가 '넷제로 시티 부산'의 미래를 미리 선보인다. 오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의 역량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롯데가 25~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그룹의 탄소중립 활동과 함께 '넷제로 시티 부산'의 미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WCE는 ▲탄소중립관 ▲청정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미래 모빌



롯데그룹관 프로모터들이 'BUSAN EXPO 2030'이 새겨진 친환경 유니폼을 착용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리티관 등으로 꾸며진다. 롯데는 WCE '탄소중립관' 내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 호

텔롯데, 롯데건설 등 19개사가 참여한 '롯데그룹관'을 운영한다. '롯데그룹관'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포집, 에너지 효율개선, 수소에너지, 연료 전환, 무공해차 전환 등 롯데의 6대 핵심 탄소저감활동 바탕,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넷제로 시티 부산'의 모습을 통해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롯데그룹관'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롯데 계열사의 미래 사업을 만나볼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